

클리블랜드 · 샌안토니오 PO 1라운드 승리

동부 컨퍼런스서 디트로이트 · 멤피스 각각 106-101, 106-74로 눌러

우승 후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디트로이트와 멤피스를 제압하고 나란히 첫 승을 거뒀다.

클리블랜드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퀵론 톤즈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1회전(7전4선승제)에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106-101로 꺾었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서도 NBA 파이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골든스테이트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던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에는 '빅3'가 견제한 가운데 좋은 출발을 했다.

카이리 어빙이 31점 6어시스트로 펼친 날이었다. 케빈 러브도 28점 13리바운드로 내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킹' 르브론 제임스는 22점 11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팀 전체 득점의 80% 가량을 세 선수가 만들어냈다. 하지만 승리는 쉽지 않았다. 3쿼터까지 76-78로 뒤지던 클리블랜드는 4쿼터 시작과 함께 디트로이트에게 연속 5점을 내주며 76-83으로 끌려갔다.

클리블랜드가 곧바로 7점을 추가하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후 점수를 주고 받으며 5분여를 남기고 88-88 동점 상황이 이어졌다. 이 때 러브가 3점슛 두 방을 꽂아 넣으며 94-90으로 앞서 나갔다. 이후 디트로이트의 추격을 따돌리며 경기를 점수했다.

샌안토니오는 홈에서 펼쳐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선수 전원을 고루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106-74로 32점차 대승을 거뒀다.

카와이 레너드는 20점 4스틸 3블록슛으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17점을, 토니 파커와 패트리 밀즈가 15점씩을 넣으며 팀 승리를 도왔다.

멤피스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온전한 경기를 펼칠 수 없었다. 샌안토니오는 3쿼터 중반 레너드의 3점슛으로 71-49로 20점차 이상 앞서가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이후 양팀은 주전 선수들을 모두 빼고 벤치 멤버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2차전 준비에 돌입했다.

서부 컨퍼런스 4번 시드 LA 클리퍼스와 5번 시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경기에서는 3명의 선수가 더블더블을 작성한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115-95로 물리쳤다. 클리퍼스는 아전사령관 크리스 폴이 28점 11어시스트로 경기를 조종했고, 블레이크 그리핀(19점 12리바운드)과 디안드레 조던(18점 12리바운드)이 상대 골문을 휘저었다. 클리퍼스는 부상으로 정규시즌 45경기를 결장했던 파워포워드 그리핀의 복귀 후 치른 6경기 모두를 승리로 장식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포틀랜드는 데미안 릴라드가 21점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백코트 듀오인 CJ 맥컬럼이 9점에 그쳤다. 릴라드와 맥컬럼은 정규시즌 45.9점을 합작했지만 이날 클리퍼



샌안토니오의 카와이 레너드는 멤피스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0점 4스틸 3블록슛으로 공수에서 맹활약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스 수비에 막혀 평소보다 15점이나 부족한 과 하산 화이트사이드의 활약으로 홈에서 활약으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살렘 호네츠를 128-91로 대파했다. 마이애미 히트는 52점을 합작한 루올 뎀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21일~27일

남원시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16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과 남원시가 공동주최하고 전라북도롤러스포츠연맹과 남원시체육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8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고규모의 국제롤러경기대회이다.

특히 이번대회는 스피드 트랙 및 로드 슬라럼 인라인하키 등 주요 롤러경기로 할 수 있는 메이저 4종목이 모두 열려 전라북도와 남원시를 국제적인 롤러스포츠 메카도시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제85회 전국청소년롤러경기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명규, 안효숙(안동시청)을 포함하여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에게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국가대표선수들이 모두 참가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개최식은 대회 3일차인 23일 오후 6시 춘향골체육관에서 이관주 남원시장, 유준상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고창군 임정수 선수 전국유도대회 여자일반부 금메달

전북 고창군 여자유도부 임정수(78kg) 선수가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임정수 선수는 지난 15일과 16일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전국실업유도대회 여자일반부 개인 결승전에서 상대선수를 누르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 선수는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랐으나 포항시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임 선수는 지난해 제96회 전국체전 3위, 전국실업유도 최강전 2위, 전국 실업유도 선수권 3위, 제15회 제주컵 유도대회 1위에 이어 올해 첫 전국 정상에 올라 그 실력을 차근차근 입증하고 있다.

임정수 선수는 "고창군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명실상부 대한민국 여자유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현대 축구단, 해외 원정시 '지오루 정장' 착용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협약...단정한 팀이미지 형성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상호 협약을 통해 남성복 브랜드 '지오루 정장'을 선수단 단복으로 착용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7년 연속으로 단골 출전하고 있는 전북은 해외 원정시 일체감 있는 모습과 단정한 팀이미지 형성을 위해 단복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클럽의 단복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스페인의 레알마드

리드나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맨유, AC 밀란 같은 유명축구클럽들은 오래 전부터 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원정시마다 무조건 단복을 착용하고 있다.

주장 김승환은 "선수단이 함께 단복을 입으니 팀에 단결력이 생기는 것 같고 팀워크도 더 높아 보이는 것 같다"며 "정장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팀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박태환, 18개월 만에 복귀...동아수영대회 출전

올림픽 출전의 길이 막힌 박태환(27)이 예정대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다.

박태환의 매니저먼트사인 팀GMP는 호주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21일 입국한다고 18일 전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동아수영대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박태환이 공식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2014년 10월 전국체육대회 이후 18개월 만이다.

박태환은 최근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번 대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였지만 참고 끝에 물살을 가르기로 결정했다. 팀GMP 관계자는 "선수가 올림픽 출전 여부를 떠나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늘 참가를 해왔다. 최선을 다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